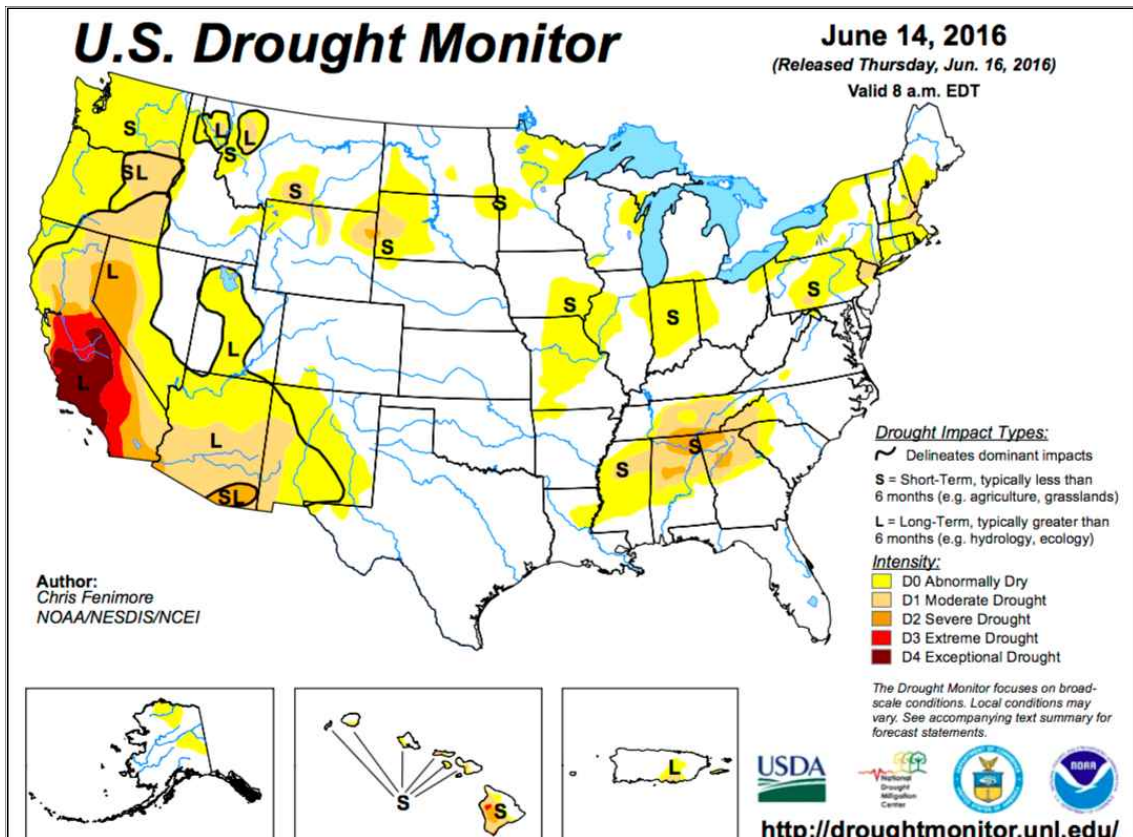


6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5)

□ 미국 기후 현황(6/12~6/18)

때이른 더위가 중부 일대를 찾아왔지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가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평원 일대에서는 1~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고, 미주리 북부와 옥수수 재배지 남서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미주리 저지대와 중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남서부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주 초반 더위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북서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찾아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와 북서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5°F 이상 낮았고, 남서부와 북동부에서도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유지했다. 북동부 그밖의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고, 애팔래치안 산맥 남부와 미시시피강 중부와 북부 등에서는 소나기가 곳곳에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6/13~6/19)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상기온을 보였다. 로키산맥 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2°F 정도 낮았고, 중부 대평원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F 이상 높았다.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 미시시피강 상류와 남부-중부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동부와 남서부,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 세계 기후 현황(6/12~6/18)

■ 유럽: 스칸디나비아와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위치한 정체성 고기압은 이 지역에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유럽 일대의 대기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동부 및 폴란드 서부와 발칸반도 등에서는 25~8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은 좋은 생육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부, 발칸반도 일대에서도 저수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비로 겨울밀과 유채 등 프랑스와 독일 남부, 다뉴브 강 중부 일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의 생육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작물의 수확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발틱 연안 국가들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 남부 일대와 다뉴브 강 하류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38°C 까지 올랐다.

■ 구소련(서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서부와 북부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내렸고, 러시아 남부에서는 한주 내도록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유라시아 대륙에 자리하고 있는 정체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북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는 10~5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러시아 서부와 북부에서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겨울밀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러시아 서부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두, 옥수수, 해바라기 등도 생육상태가 좋은 편이다. 반면, 러시아 남부의 겨울밀 재배지역인 Rostov, Krasnodar Krai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밀이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초반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였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30~34°C까지 올랐다.

■ 동아시아: 중국 북동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과 서부 일대에 내린 비로 벼 재배지에는 물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 보타 남부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밀의 수확작업이 지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밀의 수확작업은 계속되는 비로 인해 작업속도가 느린 편이고, 수확한 밀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남동부에서는 100~30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벼 재배지에 충분한 물이 저장되었다. 양쯔강 중부의 Hubie 등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남한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 호주: 밀 재배지 전역에는 비가 내렸고, 이 덕분에 최근 파종한 겨울작물과 유지식물들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다. 이번 비는 겨울작물의 발아에도 도움이 되었고, 밀과 보리, 카놀라 등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강우량이 5~25mm, 50mm



를 기록했다. 퀴즐랜드 남동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동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호주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높은 기온 덕분에 작물의 성장속도도 빠른 편이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다.

■ 아르헨티나: 북부와 중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옥수수, 대두, 면화 등을 수확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와 남부의 La Pampa, Cordoba 남부, Buenos Aires 남서부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북동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정도 낮았다. Chaco, Formosa 등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면화송이가 건조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93%, 43%이며 옥수수의 경우 지난 해 같은 기간 수확률인 59%에 비해서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 일대에서는 비가 이어지면서 옥수수, 사탕수수 등의 생산전망을 한층 어둡게 했다. Parana 북부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이어졌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이모작 옥수수의 38%가 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수확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수확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평년의 기온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주 후반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올랐다. 남부 옥수수 재배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몇 주간 이어지고 있다. Parana 남부,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북부 등 대부분의 옥수수,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북동부와 중부의 주요 옥수수,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고, Bahia 등의 코코아, 커피 재배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